

우리는 몸이 아플 때 병원에 가서 진찰받는 것을 꺼리듯, 영적인 문제에 있어서도 자신의 죄나 약점이 드러나는 것을 피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배에 참석하고 헌금이나 봉사를 한다는 이유로 스스로 영적으로 건강하고 괜찮은 상태라고 착각하며 자신을 포장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영적 질병을 외면하고 방치하면 결국 신앙의 성장이 멈추게 되며, 겉으로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아도 속으로는 영적인 무감각에 빠지게 됩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은 건강한 자가 아닌 병든 자, 즉 의인이 아닌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죄인은 단지 윤리적인 죄를 지은 사람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힘으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는 절대적으로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고통과 영혼의 방향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자격이 아닌 긍휼하고 병든 상태 그 자체를 불쌍히 여기셔서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나 풍요로운 환경을 누리는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은 종종 자신의 영적인 궁핍함을 깨닫지 못한 채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교만에 빠지기 쉽습니다. 반면, 극심한 고난 속에 있는 사람들, 예를 들어 스스로의 한계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도미니카 공화국의 빈민이나 일본 도쿄의 홀리스 같은 사람들은 복음에 훨씬 더 마음이 열려 있으며 구원자에 대한 깊은 간절함을 보입니다. 주님은 우리 역시 이처럼 자신의 절대적인 부족함을 깨닫고 주님을 간절히 찾기를 원하십니다.

나아가 예수님은 우리를 단순히 지옥에서 건져내는 것을 넘어, 삶 속에서 생명을 더욱 풍성하게 누리는 영원한 관계로 초청하십니다. 주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을 부르시며, 세상의 무거운 멍에 대신 주님이 주시는 온유하고 가벼운 멍에를 메고 참된 쉼을 얻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삶과 신앙생활 속에서 쉼을 누리지 못하고 힘들어하는 이유는, 자기를 부인하지 못한 채 여전히 내 뜻과 내 방식대로 삶을 통제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익숙함에서 온 교만으로 기도를 소홀히 했을 때, 갑작스러운 건강 문제 등 예상치 못한 어려움을 겪고 나서야 다시금 철저히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된 것처럼 말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스스로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착각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오히려 나의 실패와 약함이 결국 나를 주님께로 인도하는 통로가 됨에 감사해야 합니다. 매일매일 주님 없이는 단 한 순간도 살아갈 수 없음을 겸손히 인정하고, 매 순간 내 삶의 주도권을 주님께 온전히 내어드리는 고백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 묵상질문

1. 나의 영적 상태를 점검할 때, 주님 앞에서 숨기거나 스스로 괜찮다고 포장하고 있는 나의 연약함이나 약점은 무엇인가요?
2. 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참된 쉼을 누리기 위해, 오늘 내가 주님 앞에 온전히 내려놓고 의지해야 할 무거운 짐은 무엇인가요?
3. 지난 한 주간 선포된 말씀을 어떻게 묵상하며 적용했는지 나눠 보세요.

2026 VISION

“Remain Rejoice”

Tacoma First Baptist Church

주중 예배 및 모임

수요예배(한어) 수 7:00PM / 본당
 수요예배(영어) 수 7:00PM / 안디옥
 어와나(영아/유치부) 수 7:00PM / 나사렛
 어와나(유년부) 수 7:00PM / 베들레헴

Youth 모임 금 7:00PM / 안디옥
 영어청년 모임 수 6:00PM / YAM Room

한글학교 토 9:30AM / 각교실

새벽예배(한어) 화 - 토 6:00AM / 본당
 새벽예배(영어) 화 - 토 6:00AM / N-117

화요일 QT모임 10:00AM / E-102

주일 예배

장년 한어예배 1부 7:30AM / 본당
 영어예배 2부 9:30AM / 본당
 장년 한어예배 3부 11:10AM / 본당
 영아부 예배 9:30, 11:00AM / O-3
 유치부 예배 9:30, 11:00AM / 나사렛
 유년부 예배 9:30AM / 베들레헴
 청소년/영어청년 11:00AM / 안디옥

사랑부예배(장애인) 11:00AM / O-19
 1:30PM / 베들레헴

한어청년모임 1:00PM(매주일) / N-208
 한어청년예배 1:30PM(마지막주일) / 본당

주일QT모임(남성) 9:30AM / E-203 & E-208
 주일QT모임(여성) 8:40AM / N-208
 9:30AM / E-101 & E-212



담임목사 **송 경 원**

Senior Pastor **Rev. Kyung Won Song**

PHONE: 253.535.5803 FAX: 253.535.2240

WWW.TFBC.ORG TFBC002@GMAIL.COM

ADDRESS: 1328 S 84TH ST. TACOMA, WA 98444

* 경배와찬양	1부: 1부 찬양팀 / 3부: 3부 찬양팀
대 표 기 도	1부: 이종천 집사 / 3부: 이종덕 안수집사
봉 헌 찬 양	1부: “예수는 나의 힘이요” 3부: “임재”
봉 헌 기 도	안재훈 목사
교 회 소 식	안재훈 목사
성 경 봉 독	누가복음 5:29-32
* 말 씀 선 포	“나의 약함이 나를 주님께 인도한다” 안재훈 목사
* 축 도	안재훈 목사

* 표는 일어나 주세요.

수 요 예 배		예 배 위 원	
경배와찬양	수요찬양팀	이 번 주	1부: 이종천 집사 3부: 이종덕 안수집사 수요: 강희정 집사
대 표 기 도	강희정 집사	다 음 주	1부: 김정숙 집사 3부: 알렉스 아라카키 집사 수요: 양승혜 집사
성 경 봉 독	요한복음 13:1-17		
말 씀 선 포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 권순모 목사		

| 드려진 예물

중보기도		Prayer List
마다가스카르선교 팀		Madagascar Mission Team
송경원, 양태규, 영숙고령, 혜숙잭슨, 이수진, 정경일, 배순애, 이미정(Lee)		
환우	Intercessory Prayer	
김세자, 인자킹, 김지현, 영자 라버츠, 선애 머레이, 엔젤라 프레이터, 박지영, 오세규. Butch Shadduck, Richard Thornton, Sean Oh, Carl Elliot, Paul Wong, William Dungey, Tom Bayliss, Ken Adkins, William Ellis, Rick Dollar, Wilbur Moore.		

환영: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새로 오신 분들은 예배 후 안내팀의 안내를 받아 준비된 식사와 교제에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10월 모임 및 행사 안내

- 어린이 학부모 미팅 (Children PTA Meeting) 10/4(주일)오후 1시, 안디옥 성전
우리 교회의 미래, 다음 세대 아이들을 더욱 든든히 세우기위해 3세부터 6학년 아이들의 학부모님을 초대합니다. 모두 오셔서 자리를 빛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목자/목녀 수련회 10/9(금)-10/10(토)
※ 신청:로비, 영어 이름으로 싸인업 하시길 바랍니다.
- 선교회 월례회 10/11(주일) 3부 예배 후
- 한어부 소망회 10/23(금) 오전 11시, 안디옥 성전
- 목자/목녀 모임 10/24(토) 오전 7:40, 안디옥 성전
- Fall Festival 10/31(토) 오후 5-7시, 교육관(체육관)
Fear가 아닌 Faith! 복음으로 세상을 밝히는 밤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무료독감 예방접종 9/27(오늘)1,2,3 부 예배 후에 교육관(체육관)에서 진행합니다.

어린이 사역 봉사자 (리더) 모집: 우리 교회의 미래, 다음 세대 아이들을 양육하는 귀한 사역에 함께 하실 가족분들을 찾고 있습니다. (Small Group leaders, Assistant leaders, Praise team)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2026년 마다가스카르 단기선교 (9/24-10/2) 선교팀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또한 현지에서의 모든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열매가 있도록 성도님들의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주일오찬 주방봉사 9/27 네팔 A 목장(미나리베라), 튀르키예 A 목장(임상순)
10/4 타이완 A 목장(철옥핏서), 마다가스카르 목장(이재찬)

| 라운드 테이블 이용 안내 (Round Table Use)

식사 테이블이 라운드 테이블로 바뀌었습니다.
원활한 식사와 교제를 위해 테이블은 서로 붙이지 않고 이용해 주세요.
뜨거운 국을 들고 이동하시거나 자리에서 일어나실 때에는 주변을 살펴 주세요

| 의자걸기 캠페인

은혜로운 교제 후, 사용하신 의자는 접어서 의자 거치대에 꼭 걸어 주시길 바랍니다.
질서 있고 아름다운 교회를 함께 세워가는 성도님들의 섬김에 감사드립니다.

| 양육훈련

새가족 클래스(4주 과정) 10/3(토), 10/10, 10/17, 10/24, 새가족 환영실, 오후 1:10
※ 신청: 로비. 차일드케어 없습니다.
제자훈련 (8주 과정) 9/27(오늘) 오후 1:15, N209(진행중)

| 행정사역

생명의 삶 10월호 \$5/권당, 사무실